

『시대따라 변하는 동물의 세계』

『時代따라 變하는 動物의 世界』

文化財管理局 金正萬

천지개벽 이후 자연동물 세계는 숭한 흥망성쇠의 변화가 있었다. 야생동물이나 가축들은 그 숫자와 번식에 있어 멸종 아니면 퇴화는 물론 시대가 갈수록 줄어들었으나 이와는 달리 인간들은 35억이란 엄청난 숫자로 날로 번창일로에 있다.

오늘날의 과학은 첨단을 추구하고서 그래도 부족하여 지구상의 서식을 제외한 인간동물은 달나라 정복을 꿈꾸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구를 주름 잡고 있는 것에 만족치못해 외계(外界)로 제2, 제3후보지를 정복하려는 야욕에 불타고 있다.

이렇게 지구를 정복하고 성공한 동물이 인간(人間)이지만 그 모습과 생물학적(生物學的)인 형태로 보아 지구의 모든 생물(生物)을 지배할만한 강점은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다.

고등동물중의 가장 제일가는 다리와 팔 두뇌의 골수량이 많은 “고릴라”는 인간과 같은 지문과 IQ가 높은 동물이며 둥글게 편편한 손톱과 건강하며 씩씩한 피력의 폭군같은 힘의 측정은 지금까지 누구도 할 수 없는 강점의 소유자를 비롯하여 “오랑우탕” “침팬지” 등에 인간을 비교하면 허약하기 짝이없다.

다만 사람은 다른 영장류와 다른점은 2.53배나 더 큰 1,440cm의 두뇌와 곧게 설 수 있는 골격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영장류 및 다른 동물에 비해 다르다는 것 뿐이다.

가장 큰 두뇌를 가진 인간(人間)은 자기보호나 종족번식과 공격에서 가장 지능적인 창조적이며 자기힘의 5~10배의 장해물과 기타의 물건을 이용한 적을 막을 수 있으며 피할 수 있는 영리한 순간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는 동물이다.

더 나가서는 인간동물은 감정이 앞서기 전에 도덕, 이성, 윤리, 관습을 머리에 두고 앞뒤를 가리는 특이한 판단의 행동이 처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생물학자(生物學者) 「조지 게일러드 심슨」은 “동물진화의 의미”라는 책중에 「인간은 동물이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이라고 표현하고 단정하기에는 너무나 도덕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인간은 동물의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육강식의 대결속에 살생을 직업으로 하지않고 살며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망정 두뇌의 생각하는 가치와 선(善)을 구(求)하고 악(惡)을 응징 제거하려는 판단과 충동을 느끼고 사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간상을 살펴보면 어떠한가?

원시 시대의 선조(先祖)인 인간들과는 달리 현대인간들은 자기파괴의 길을 걷고 있다. 핵무기 개발에 전전공공하고 있는 인간, 퇴폐의 나락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하등동물아닌 인간의 퇴보적인 도덕과 윤리를 망각하는 인간, 더구나 인간들은 자기들이 자라온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수명마저 단축케 하는 공해의 지옥을 그리워 하며 천국의

낙원으로 다시 돌아 가려는 것이 요사이 인간이다.

이와 반대로 영국의 동물학자인 「모리스」는 “벌거벗은 원숭이” 라는 책속에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번식과 향락을 누리는 동물인 인간은 지금까지 수 많은 시간을 그들이 살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정신이 집착된 행동이 탐구와 연구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야생에서 생활(生活)하는 고등동물들의 기본적인 문제는 윤리와 도덕때문에 억누르며 의식적인 자제와 등한시한 척해왔다.

인간이란 동물은 모든 영장류 가운데서 그들의 두뇌가 가장 크고 영리하다는 것만 자랑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남녀의 성생활(性生活)은 눈을 가리며 눈과 몸이 부딪히는 무언의 대화에서 짝이 트며 사랑의 짝은 차후의 개별적인 행동으로 숨어 가면서 해결한 것이 하등동물과 고등동물의 차이로 숨기며 살아왔다.

그러나 인간은 맹수중에 맹수라고 할만큼 야수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자연의 신비속에 인간은 생존경쟁을 하며 수억년을 두고 진화해온 결정체의 산중인들이 바로 인간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 행동의 저변에는 너무나도 흡사한 야생동물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허다하다.

생물계의 인간의 소속을 분류하면 척추동물문(門)→포유망(綱)→영장류(靈長類)→인과(人科)→인속(人屬)→인종(人種)으로 되어 있다.

인간의 학명은 라틴어로 「호모, 사피엔스」(HOMO=순수, SAPIENS=지혜) 순수하고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현존하는 지구상의 영장류를 분류하면 193종(種)에 달한다.

사람은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탕을 너무나 많이 닮은 동물이다.

이중에 인간과 다른점은 ① 다른 영장류보다 두뇌가 크다는 것. ② 형태학적으로 코칭(코구멍 사이의 막)이 뚜렷하고 (뚜렷할수록 진화된 동물)긴코부리를 가지고 있다. ③ 인간의 윗입술에 도랑이 있고 구강(口腔)의 점막을 내보일 정도로 밖으로 내밀수 있다. ④ 외부로 돌출된 뺨이 있다. ⑤ 발가락은 1개의 선상(線上)에 고르게 발달되었다. ⑥ 이빨은 다른 영장류에서 볼 수 없는 고른 치열(齒列)을 유지하고 있다. ⑦ 비교적 표피에 털이 없는 것 등을 지적한 「크라우드 빌레」의 인간의 진화라는 책에서 입증하여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인 고등동물은 물론 하등동물보다도 자기의 생명(生命)에 대(對)해서는 비열한 것이 인간들이다.

지구상에 살아있는 포유류는 4,237종에 그가운데 체모가 없이 살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다. 동물들의 체모는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방패의 구실과 외상의 상처를 덜주며 그것에 앞서 형태 구조상의 중요한 부분에 체모가 많이 있는 것은 약한 부분을 보호해주는 제일의 기능역활을 한다. 그러나 인간만 체모가 거의 없이 부분적으로만 발달되어 나 있으며 다른 영장류에 비해 먹고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체표면과 체온의 보호까지 인위적으로 하여야만 살 수 있는 선천적인 두뇌를 쓰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발달된 것이 두뇌뿐이고 이것의 부산물이 동물과 다른 속임과 속고 사는 인생의 희비속에 머리를 써야 하는 고달픈 생활 환경에 지금도 인간동물들은 봉착하고 있는 것 같다.

요사이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전세계적인 도시화의 속도가 원시야만 시대적인 생활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차적인 자연환경에서 살던 모든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야생동물보호가들의 성서적인 「레드, 데이터북」은 20세기에 들어와 지구상의 데이터를 찾아볼수 없는 수많은 동물과 조류들이 인간의 기계문명의 발달에 따르는 공해와 학대, 독

살, 살생 때문에 사라진 「도오도」 새와 큰바다오리를 위시하여 800종에 달하는 동물들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멸종의 위기에 처해있는 동물은 오카피, 고아라, 자이안트 팬더, 봉고, 호랑이, 캥가루, 큰수달, 독수리, 악어, 콘돌, 고래, 에미우, 물소, 화식조, 두루미, 황새, 오랑우탕, 고릴라, 사향사슴 등의 예를 들수 있다.

이에 호응하는 자연의 신비스런 생활조건은 동물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 있어서도 전세계에 현존하는 2만종의 식물중에 10분의 1인 2천종이 멸종의 위기에 있다는 글을 국제자연 및 자연자원보존연맹의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다. 동물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죽는다고 뉴욕 동물원 원장인 「윌리엄 콘웨이」 씨(氏)는 말하고 있다.

코끼리나 기린, 줄말 같이 일반적으로 인간의 보호를 받으며 아무리 큰 동물이라도 보호를 받으며 그 이외에 각종 야생동물들은 가죽, 고기, 이빨, 깃, 모피 등을 이용한 박제표본의 장식용 때문에 사냥꾼들의 끈질긴 추격과 사살 때문에 멸종이 되고 마는 것이 그 전부인 것이다.

멸종된 동물중에는 자연의 환경과 기타의 여건이 맞지 않아 죽어간 동물이 1600년 이래 모두 359종이나 되며 요사이 세계야생동물 보호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817종(種)에 달하는 새와 포유동물들이 멸종되어갈 우려의 위험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인간의 두뇌에 의한 기계문명의 부산물은 커지며 그 숫자에 있어서도 순식간에 수억으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자연의 생명체만은 인간의 힘으로 기계제품같이 만들 수 없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출생 후 어미에 품을 떠나면 살생과 투쟁의 연속으로 매일 매일의 숙명적인 싸움 끝에 운이 좋은 놈이면 그래도 강자의 눈에 걸리지 않아 자기만이 순간적으로 마음 편히 지낼수 있는 단순한 표현없는 생명체(生命體)이다.

식물과 동물은 전혀 다른 번식과 파종이 다른 생명체(生命體)이다.

동물의 경우를 보면 어느 품종의 동물이 멸종이 되었을 때 새로운 종으로 대체되지도 못하고 아주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식물은 모체는 죽어도 뿌리로부터 재생하는 씨로서 자연 파종되는 싹이 나오는 것이 동물과 다르다. 그리하여 요사이 전세계동물원에서 1년간의 번식되는 동물들의 숫자는 1천5백종의 동물들이 번식되고 있다고 국제동물년감에 보고 되었다.

근래 전세계적인 동물들 보호를 위해서는 살림법과 수렵법을 개정하며, 나라에 따라서는 국립공원이나 자연의 풍치림을 보호하여 주므로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는 풍치 조수보호법이 나오고 있다. 동물원과 특별지구의 일시적과 영구적인 보호구를 설정하여 엄격한 법률적인 규제의 국민계몽을 활발히 전개하여 살생치 않는 인식의 선입감을 사람들의 머리속에 뿌리깊이 박혀져야 한다.

1960년대부터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자연의 서식지를 동물들에게 부여하여 주므로서 국립자연 동물원의 설치는 물론 야생동물들을 구출하는 좋은 방법이 되었다. 미국의 멸종되어가는 들소들의 에로이스트 국립공원 박사는 들소전멸의 위기로부터 구출하였으며 이 곳을 찾아드는 미국전역의 서식하는 각종동물들이 집결이 되어 사슴류중에서 가장 큰 “와비즈” 나 “일크” 및 사향소의 자연서식과 번식의 증가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카나, 우간다, 로테시아, 탄카니카의 여러곳에 마련된 자연공원은 특별한 정부의 투자를 하지않고 다만 자동차 길은 물론 동물들이 필요한 사료의 일환으로 자연초질이 될 수 있는 각종 풀씨와 유실수를 뿌려 주므로서 아프리카의 평야에 놀던 옛동물들의 자연서식의 모습과 습성을 알 수 있다. 변천하는 동물의 습성과 동물원의 전시는 석기시대에 수렵전성기

인 지질(地質)의 홍적세(洪績世)에 속하며 석기(石器)는 타제(打製)로서 수렵과 어로(漁撈)에 치중하였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렵의 잔인상은 그 즉석의 살생이 아니면 이차적으로 부상을 입은 동물에게 구조와 치료의 손길이 뻗치며 살아있는 생명체의 가엾은 나머지 인공사육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생동물들을 기를 수 있는 방안과 반면에 인간(人間)들에 잘 순치될 수 있는 습성을 파악하여 만든 것들이 오늘날의 가축이라 일컫는 동물에 속한다. 석기시대의 고화(古畵)를 보면 석족(石鑊), 석시(石匙), 석물(石物), 석봉(石棒), 석혈(石血) 등이 있고 각종 조류의 뼈와 수류(獸類)인 멧돼지, 사슴, 곰, 호랑이, 등의 뼈와 석(石), 골(骨), 죽(竹) 또는 목제(木製)의 죽(鑊), 창(槍) 등이 나오고 있다.

인류는 조수와 어류를 따라 산림과 해안 근처에서 살며 남자는 수렵, 여자는 가사를 돌보는 일에만 협조한 듯하다.

- ① 손으로 움켜잡는 사냥.
- ② 활을 사용하여 잡는 사냥.
- ③ 투석(投石) 투시(投矢) 투창(投槍)으로 잡는 사냥
- ④ 옥무(구(鉤) 뜻으로 잡는 사냥.
- ⑤ 함정으로 빠져잡는 방법.
- ⑥ 엽건으로 잡는 방법.
- ⑦ 호적(呼笛)을 불러 잡는 방법.
- ⑧ 매연을 피워 잡는 사냥.
- ⑨ 매(맹금류) 이용하는 사냥.
- ⑩ 단애(斷崖)로 떨어뜨려 잡는 사냥.
- ⑪ 집단 모리의 유도 사냥.
- ⑫ 강자의 투쟁으로 동물간의 싸움의 사냥.
- ⑬ 실족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잡는 사냥.

그 시대(時代)에 포획동물을 한살하거나 지극히 단순한 방법의 생포나 약간의 외상을 입은 동물과 어린 새끼들의 어미의 살생의 죄책 때문에 집에서 기른 각종 야생동물들에 눈에 보이지 않게 보답을 하며, 친근하는 동안 여러사람들이 공동 아닌 가족단위의 전시가 씨—커스의 흥행사들의 눈에 들음으로서 인간에 재롱떠는 것을 잠깐 보며 줌으로써 하나의 큰 동물원 발생의 기원이 되었던 것이다. 원래 동물원의 동물은 가축화가 될 수 없는 동물들을 가두어 놓고 일반에게 보여주는 생태, 습성, 먹이등의 적성을 찾아서 사육전시하는 것이 동물원의 기본목적이다. 현재 세계 각국의 동물원을 엿보면 종래의 철장같은 동물원의 전시방안이 변하여 도시동물원에서는 좁은 축사내에 방사장 형식의 사육전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생각하였으나 요사이 동물원의 기능 관리 및 전시면에 있어서도 크나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관람객의 위락(慰樂)만을 주기능(主機能)으로 사육전시하던 옛날과는 달리 사회교육적 학술연구적 기능이 부가된 인류 문화 목적에 쫓기는 야생동물들은 보호에 맞서 일정한 서식처를 정하지 못하는 나그네 신세로 변하는 철새와 같이 텃새들의 보금자리를 못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요사이 동물들의 방랑생활이다.

그러기 때문에 동물원들은 지금 전시한 분류학적 전시방법을 달리하여 동물지리학적 동물 생태분류학적 전시를 하기에 덧붙여 동물 심리학을 이용한 집단군서전시방안이 가장 근대적인 이상주의의 동물전시방법으로 대두되어 동물사육시설에 있어 동물들의 감옥에서 방사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동물원으로 변하여 간다.

이와같이 자연의 세계에 마음놓고 활개치던 모든 동물들을 사람들이 잡아다 좁은 철장속에 가두어 놓고 오래오래 살아만 달라고 기대하는 인간의 심리를 동물된 입장에서 분석하면 인간은 잔인하고 자유를 억제하며 빛 좋고 허울 좋은 시청각 교육과 정서교육을 위해 전시한다는 명목만 세우고 반면에 보이지 않는 속에서 말 못하는 동물들의 고초와 자기성질을 이겨 내지 못하여 그만 죽어가는 간접적인 살생을 시도하고 있다고 동물들은 다 느낄 것이다.

그래도 야생동물들의 순진한 마음씨와 후천적인 생명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좁은 축사가 자기의 천국과 같이 생각하고 인간의 산교육 자료로서의 충분한 교육적 가치와 공헌을 하여가며 좁은 축사내에서 매년 전세계적으로 번식되는 동물원 내의 품종은 1, 500~2, 000종에 달한다고 한다.

이 얼마나 순진하고 우둔한 동물들인가. 동물은 시대에 따라 대(大) 중(中) 소(小)의 형태로 변하며 인간의 끈질긴 노력의 개발에서 오는 야생 동물을 가축화 만들 때에는 적어도 1대에서부터 10대의 자손들이 이어받아 연구 노력한 끝에 수 많은 인간들이 개발한 가축 및 가금화의 시대적 생활필수품의 도구화로 번식 및 품종 개량을 한것도 사람이 모두 한 것이다.

이와같이 야생동물이 가축화 될 수 없는 선천적인 습성의 동물은 동물학자들 간에 20년을 전후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조류와 파충류를 제외하고는 I.Q.가 있는 동물은 인간의 힘으로 순치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근래에 와서 내려졌다. 그 예로서는 지금부터 20년전만 하더라도 고릴라는 인공번식과 고릴라 조교는 불가능하고 아프리카의 폭군으로 군림하여 살아가다 죽는 동물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으나 요사이에는 고릴라 조교는 물론 사육사의 신변 보호와 관람객에 갖는 희롱을 하여 하루에 피로를 풀어주는 재롱등으로 몸집에 어울리지 않는 간사한 동물로 등장한 시대는 10년이 지났다. 동물은 반드시 시대에 따라 순응하고 순치되는 모양의 동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와같이 사람의 손끝이나 인간이 가해를 하면 반드시 그 숫자는 감소 이외의 멸종위기까지 몰아넣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세계의 동물원에 동물을 전시하기 위해 원산지의 동물상인들이 생포함과 동시 1차적인 좁은 우리내에서 검역소에 들어간 것 같이 1~3개월의 원산지 야생순치의 길을 들인 다음 타국의 동물상인들의 반야생 동물들을 공중수송을 하여 다시 동물원의 관람객에게 선을 보이게 하는 것이 관례이다.

야생시에 생포한 모든 동물들은 생사의 판가름을 하는 시기는 2~3일만의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야생동물의 습성은 환경이 바뀌면 우선 탈출이 급선무이다. 탈출하기 위하여 철책과 인제책을 사정없이 들이 받아 타박으로 인한 뇌진탕이나 내출혈사를 이르게 죽는 것이 50%에 속한다. 반면에 생명에 위험성이 없으면서 온몸에 입은 부상을 치유하기 위해 야생의 인위적인 무저항의 생활을 하는동안 사육사(사람)의 얼굴과 야생시 두려운 질주의 생존경쟁의 약육강식의 눈초리를 보지 않고 편히 살 수 있다는 판단밑에서 현재의 위치에서 순응하려는 준야생의 습성이 생기기 시작하며는 좁은 우리인 동물원내에서도 오래살 수 있는 후천적인 동물원 동물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맹수아닌 동물로 변하고 만다.

사람이란 짐승이나 과격하고 괴팍한 자기 고집만 주장하며 신경을 돋구며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자기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불의에 불치의 순간적인 병으로 죽고 마는 예가 허다하다.

동물은 사람에게 양보와 의지하는 힘만 있으면 죽지않고 자기자신이 생각하는 종족번식에 만전을 기할 수 있으며 아기자기한 생활영역이 부활될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은 말로서 대화의 광장이 열리지 않아 일생동안 오해와 증오의 실마리를 풀지못하고 사람의 신세만 지고

사는 것이 동물인 것 같다.

시대와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변천하는 서식지의 이동과 멸종의 위기에서 변하는 진맹수류의 변천상을 살펴보면 우선 제일 먼저 사자를 들 수 있다.

사자는 원래 루마니아, 이태리에 이르는 동부 유럽, 터키에서 인도, 아라비아에 이르는 근동(近東) 전지역과 적도 삼림지를 제외한 지브랄타에서 희망봉까지 이르는 전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북아프리카에는 극히 드물거나 거의 멸종서식하면 유럽 터키, 아라비아 등지에서는 이미 사라졌으며 현존하는 자연 서식지로는 아프리카와 파키스탄 인도 중북부에 남았다고 하나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인도에도 멸종되어 서식치 않는다. 사자는 A.D.100년까지만 해도 동남 유럽에도 살고 있었으나 18세기초에 이르러서는 거의 멸종되어 일부지역에만 한정되어 자연서식하는 동물로 되어 버렸다.

사자는 다른 맹수류와는 달리 정글이나 무성한 삼림 산악 및 심산계곡보다 나무나 거목들이 없는 초원지대나 반사막지대에 사는 동물로 5~6마리의 가족단위의 군서생활을 한다.

19세기의 기계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은 우리나라뿐이 아닌 전세계적인 토지확보의 전쟁도화선인 무기의 신발명과 의식주의 해결을 위해 산간벽지의 개간은 물론 원주민들의 동물 살생의 본격적인 사냥으로 인간들을 피해 멀리 떠나야 되는 신세가 되었다.

이 때의 영국은 벌써 전세계의 무력으로 식민지 정책을 써서 인도의 서식하던 당시의 사자들이 영국장교들의 사냥 스포츠를 즐기는 운동으로 몇 년 동안에 480마리의 사자들을 사살했으며 인도의 현재 “길”이라고 부르는 초원의 삼림과 “구차렛” 단지에 몇쌍의 인도사자가 서식할 뿐이다. 이때의 영국의 한 장교는 1년에 80마리라는 어마어마한 인도사자를 사냥하였다는 구전(口傳)으로 보아 영국군의 식민지 정책화할 당시의 인도사자는 인위적인 사람들의 살생 때문에 살곳이 못되어 서식지를 이동한 것이 틀림이 없다.

초원의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 동물들 중에 백수의 왕이라 불려도 정정당당한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닌 불의에 충성과 함께 살아가는 동료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동물은 없다.

특히 사자는 다른 맹수류와 달리 야행성이 아니라 대낮에 활동하며 사람이나 사냥꾼의 눈에 잘 띄이며 사냥꾼으로서 남성다운 백수의 왕인 사자의 위용있는 수놈들을 살생할 때의 기분과 단발에 명중되어 앞발꿍고 사냥꾼에 항복하는 남성 스포츠의 최대의 스킬 때문에 사자는 더한층 사살이 되었으며 공포속에 지내는 인도와 유럽지역의 모든 사자들은 자기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이동정착한 곳이 아프리카이다.

또한 사자는 전세계의 어느 곳에도 동물원이 생겼다하면 필수전시품목으로 생포를 하여 전시를 하며 이로인해 초창기 사육전시하는 데에는 사자들이 기후와 환경에 적응이 되지 않아 많은 희생이 된다. 사자는 시청각 교육자로서 반드시 수난을 겪어야 하는 동물로서 인간공해의 최대의 희생자 였으나 시대와 사람의 끈질긴 노력으로 환경과 기후 및 좁은 우리에서 순치되는 숙명적인 사자로 체념한 생활의 적응성은 마침내 전세계 각국 동물원으로부터 인공사육번식에 성공하였다. 동물원에서 번식한 새끼들이 허다하여 요사이 신설되는 동물원 사자들은 원산지인 아프리카에서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원산의 사자새끼들이다. 한 때 1960년초(年初)에는 가까운 일본에 고기값의 상승 때문에 처치곤란한 1두당 50\$씩하는 사자새끼 풍년의 과잉생산이 된 적도 있었다. 그리하여 요사이는 영국, 이태리, 미국 등지에서도 “라이온 택시 장글”이라는 색다른 아프리카의 카나야, 당카니카, 우간다 같이 사람이 동물이 되고 동물(사자)들이 사람구경을 하는 반대의 관람전시하는 “마이카 시대”의 시대적인 자기차를 타고 30~100만평의 자연서식하는 사자동물원을 구경하는 진풍경의 동물원이 유행처럼 인산인해를 이루는 방대한 동물원을 전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자인 경우에

는 사람이 무지하고 몰지각한 살생 때문에 유럽과 인도 지방에 멸종은 되었지만 반면에 전세계에 분포되어 인공번식 사육하는 숫자는 일년에 수 백 마리에 달하여 사자들의 멸종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한가지 자연상태에 있어서 사자의 형태와 습성은 가축화와 같이 좁은 우리내에 농우사료의 급여와 운동부족에서 오는 비만증 때문에 자연상태로 서식하는 야생의 사자에 모습보다 인공사육의 사자에 모습은 시대의 변천하는 후천형의 사자에 모습으로 변해간다.

백수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자도 인간의 무서운 두뇌와 노력 때문에 동물원의 동물로 변해 버린 처량한 즐장부의 비열한 사자의 모습으로 변해졌다.

요사이 전세계적인 사자의 폐사율의 병명을 분석하면 비만증에서 오는 심장마비와 개과에 많이 발생화는 심장사상충증 및 간경변의 문화병의 폐사율이 높아지고 있다. 야생시의 비만증과 심장마비 및 간경변으로 인한 급사는 흔히 볼 수 없으며 동종간의 우위다툼시 살생과 노시로 인한 자연사하는 예가 허다하다.

사자도 사람과 같은 신세인 문화병으로 죽는다는 인간의 학대가 원망스러울 것이다.

사자와는 반대로 동물원 기술자나 인간의 끈질긴 노력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야수의 독특한 습성을 고수하는 호랑이는 원래 추운 시베리아 지역에서 “골스타노보이” 산맥까지 분산되어 서식한 흔적이 있으며 중앙아시아, 이란, 코카시아, 만주, 한국, 중국, 인도차이나, 인도, 자바, 스마트라, 태국 등에 분포서식한다.

최초의 호랑이의 분포서식지는 북극의 동물로서 현재의 동부시베리아에 살고 있었던 호랑이가 추운지방에 서식하는 각종 살생동물들의 수가 적으며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이동한 것이 오늘의 남서(南西) 양군으로 분산 서식하게 되었다.

한가지는 시베리아와 만주, 중국, 한국을 중심(中心)으로 분포 서식하던 대형 호랑이종에 속하는 시베리아, 만주, 한국호랑이의 3종 등이 대표적인 호랑이이다. 한편 미얀마, 인도, 중국의 남단을 기점으로 다시 분산 서식하는 소형과 단모종의 호랑이인 인도지나 스마트라, 자바, 실론, 보르네오에 서식하는 호랑이는 인도를 중심으로 사는 벵갈호랑이이다. 이 호랑이를 전세계 동물원에 전시되고 있는 호랑이는 거의 90%가 벵갈 호랑이이다. 요사이 인도에서는 동물원 전시용 호랑이의 포획과 호피의 장식품을 만들고져 한 엽기에 천 5백~2천두의 밀살 및 생포를 한다.

호랑이 생포시의 원산지 가격은 천오백불 밖에 안되며 호피한장에는 불과 3~400불 밖에 안가는 험 값을 무조건 살생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도정부에서는 1970년도에 1차로 인도의 21개주중 12개주가 금엽구로 설정하였으며 2차계획인 1972년부터는 년중 600\$만불의 예산을 들여 호랑이 보호와 인도전역의 생포 및 살생을 금지시켰다.

원래의 벵갈호랑이는 1930년대의 조사통계를 보면 야생에 자연 서식하는 호랑이가 5만두에 가까웠으나 현재 2천마리밖에 남지 않고 1년에 적어도 7천 ~1만마리의 살생을 하여왔다.

그리하여 시대의 변천하는 과학의 정밀한 기계들은 모든 동물들의 무서운 적이며 살생자로서 앞으로 20~30년후이며는 기계문명의 2차적인 공해보다 사람과 야생동물들간의 협정아닌 일정한 바운다리를 정하여 가지고 서로간의 침입 없는 살생이 없는 낙원과 자연수목에서 현대의 공해를 받지 않는 양자간의 견제하는 대등한 입장에서 살게끔 인간들이 만들어 주어야 된다.

사람들의 등살과 인간의 몰지각한 살생 및 생포 때문에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모습의 각

종 동물들의 모습은 사진이나 생물표본으로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리하여 시대와 함께 동물원의 전시중인 호랑이외에 각종동물들의 번식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하여 동물원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번식의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 호랑이는 사자보다 다산계(多産系)의 포유동물로 한배에 2~6마리의 새끼를 103~105일만에 낳는다. 이러한 다산종의 맹수류를 지금까지 현대 과학과 사육 및 시설물의 장점을 애용한 번식을 충분히 이용하여 자급자족 후 자연방사 시키는 길이 터져야 멸종의 위기에서 면하게 된다. 현재 한국 호랑는 6·25와 1·4후퇴의 양차에 전란 때문에 호랑이의 모습조차 알아 볼 수 없는 전문가들의 실정이나 일반이야 오죽이나 모르겠는가?

그러나 요사이 한 가닥의 희망은 우리나라의 3년간의 수렵금지와 호랑이의 하루저녁에 활동하는 범위가 80~90km인고로 이북으로부터 내려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국호랑이의 멸종은 총성과 자연서식지로서 고목과 이에 따른 호랑이의 각종 살생의 포식할 동물이 없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버리고 외딴곳으로 정착하게되는 시대적 분포 서식지의 변동을 가져오게 하였다.

클럼버스가 1492년 처음으로 신대륙을 발견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북아메리카의 서식하는 들소떼들은 6천만두 가량이 살고 있었다.

이와같이 거대한 대군(大群)의 들소떼들은 백인(白人)들의 이주하기 이전에는 자연상태로 이동 서식하는 모습은 넓이가 25마일 길이의 연장이 50마일 이나되는 대륙의 평원에 검정물결이 치는 것 같은 하나의 큰 장관을 이루웠던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미대륙의 동부가 개척된후에도 들소에만 의지하고 의식주를 해결하였으며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들소의 숫자와 생활에 위협을 주는 심각한 생사의 문제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아메리카 인디안과 백인들은 마침내 총뿌리와 창 화살의 싸움이 끊임없이 지내왔다.

당시 신앙의 자유와 군주제도에 억눌려 살던 유럽백인들이 자유롭고 평화스런 자기의 농장과 농원을 가지고 자영할 수 있는 미대륙에 이민한 황무지의 일시적인 의식주의 해결원의 공급은 들소들 뿐이었다.

원주민인 인디안은 그 땅위에 자연 서식하는 들소떼를 지키려는 것이고 백인들은 임시 들소 고기를 잡아먹으며 지하자원과 농장을 경영하여 보려는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들소떼의 살생방법은 총도 없는 소리와 창으로 몰고가서 낭떠러지에 추락사를 시키는 것이 유일한 집단살생의 일시적인 수 백 수천마리도 한번에 해치는 살생법이기도 하다.

이와는 반대로 동부의 개척자인 백인들의 총뿌리에 배겨내지 못한 들소들은 점점 그 수가 줄어 인디안들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에 분격한 원주민들은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에 분격한 원주민들은 백인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역마차 습격을 하여 무차별하게 백인들을 살생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원주민과 백인들간에 협상이 되어 백인들은 인디안에게 농업을 가르쳐 의식주를 해결하게끔 제시하였으나 인디안들은 지속적인 들소의 사냥에 의존할 생각을 주장하였다.

의견이 엇갈린 백인과 인디안의 사이에 지속적인 참극은 이루 형용할 수 없게 전개되었다. 여기에서 들소 사냥 명포수의 등장이나 나왔으며 다시 말해서 유명한 "바팔로 빌"이라고 불렸다.

"바팔로 빌"은 한사람의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유명한 사수들이 저마다 자기

의 장기를 자랑하며 사살과 포획의 요령을 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냥꾼들은 저마다 자랑하는 단독으로 들소떼에 접근하여 들소들을 총소리에 놀래서 도망치지 않도록 사수인 자기에게 반격하거나 기습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교묘하게 들소떼를 당황케 하여 제자리에 세워놓고 계속해서 사살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수인 사람을 “바파로 빌”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들소떼의 리 —다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이 때에 차석인 리 —다가 왕자의 죽음을 알고 대신 명령하는 찰라 “바팔로 빌”은 재빨리 그 늑의 머리를 쏘아 쓰러뜨린다.

이렇게 해서 리 —다 없는 들소떼를 만들면 완전히 질서가 무너져 제자리에서 서성되므로 반격도 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수백마리의 들소를 잡을 수 있는 명사수를 말한다.

1860년 서부 캔자스 대한발 때 윌리엄 매디슨씨는 들소고기를 주민들에게 공급하여 기아에서 구출한 당시의 유명한 “바파로 빌”의 사수로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한다.

그 후 계속적인 살생과 남획은 멸종의 위기까지 가져오게 되었으므로 1889년 미국의 야생조수보호회의에서 조사한 바 541두란는 작은 숫자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하여 미국의 코넬찰스 J. 존슨 대령이 1902년에 들소를 보호하기 위해 들소들을 사로잡아 “엘로스톤” 국립공원에 방사하여 그 중에 몇마리를 순치시켜 마차를 끌고 밭을 갈기도 하는 신품종으로 나온 것같으나 야생의 본능은 어릴 때부터 길이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야새으로서의 순치될수 없는 남성적인 야생 초식동물로 되돌아간다. 현재 70년이 지난 “엘로스톤” 국립자연공원에는 5천~1만두에 가까운 숫자의 번식을 보았다.

이와같이 지구상에 흑백 전쟁의 시대적 수난과 야생시의 저돌적인 투쟁은 시대의 변천 하마에 따라 없어진 초식동물의 대표적인 피해와 멸종위기를 몰아온 들소떼이다.